

의약품 시장의 지존 “박카스”

제약협회, 2007년 생산액 1269억원 ... 백신 퀴박셈이 816억원으로 2위

2007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의약품은 동아제약 <박카스>로 나타났다.

한국제약협회가 7월8일 발표한 <2007년 완제의약품 생산 100대 품목>에 따르면, 2007년 국내 생산금액이 가장 많은 의약품은 동아제약 박카스와 베르나바이오테크코리아의 백신 <퀴박셈>으로 생산금액은 각각 1269억원과 816억원으로 집계됐다.

다만, 발표된 자료는 국내 생산 의약품의 공장출고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의약품의 사용량이나 사용금액과는 차이가 있다.

2006년 생산실적 1위였던 Sanofi-Aventis의 항혈전제 <플라빅스>는 711억원으로 5위로 내려앉았으며 박카스는 2006년 2위에서 2007년 1위로 복귀했다.

박카스와 퀴박셈에 이어 동아제약 <스티렌정>(764억원), 한국쉐링 <울트라비스트300>(723억원), 한독약품 <플라빅스 75mg>(711억원), 한미약품 <아모디핀 정>(668억원), 글락소스미스클라인 <제픽스 정>(638억원), 한국쉐링 <울트라비스트370>(543억원), 녹십자 <알부민 20%>(502억원), 동화약품 <가스활명수큐액>(499억원) 등이 10위권에 포진했다.

기업별 100대 품목 수는 대웅제약이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제약, SK케미칼, 녹십자 7개, 한독약품과 한국안센이 각 6개로 뒤를 이었다.

의약품 국내 생산실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 <글리아티린 연질캡셀>, 녹십자 <헤파빅 주>, LG생명과학 <자니딕 정>, 한독약품 <아마릴정 2mg> 등은 전년대비 37-50%가 감소해 대비를 이루었다.

100대 품목 중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71개와 29개로 2006년의 70대30과 유사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7/08>